

漢文學과 濟州文學

蘇 在 英*

목 차

1. 머 리 말
2. 유배문학의 특수성과 자료
3. 官人·來訪客文學과 자료
4. 제주출신 문인의 문학과 자료
5. 맺 는 말

1. 머 리 말

제주도는 옛부터 지역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육지문화와는 다른 다층적 문화현상을 형성하여 왔다. 이는 문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조선조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사화 당쟁과 관련하여 수많은 관각문인 지식인들이 이곳 외딴섬 제주에 유배되어 옴에 따라 그들의 태도가 정치지향적이든 은둔적이든 간에 하나의 뚜렷한 학적 계맥을 형성하여 왔다. 이를 흔히 '流配文學'이라 일컫거니와 이들의 문학활동은 비록 유배 현지인 제주에서 이루어졌지만, 제주 문학 뿐만 아니라 조선조 문학을 대표하는 뚜렷한 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두번째로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는 동기가 어떠했든 제주도에 목사, 판관 등 관인의 자격으로 입도하여 정사와 관련하여 작품활동을 했거나 풍광을 노래한 인물들이다. 여기에는 비록 제주와 직접 관련된 인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연관관계로 제주를 찾은 벼슬아치나 문인들도 포함된다. 오히려 후자의 경우는 신분이 자유로우므로 사물을 선입관 없이 객관화 할 수 있었음인지 비교적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겨 놓고 있다.

* 崇實大 國語國文學科 教授

세번째로는 순수하게 제주에서 출생하여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과거에 급제하는 등으로 제주에 뿌렸한 문학적 발자취를 남겨 놓은 인물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은 전술한 유배객들의 제자로 향토를 빛낸 사람들이 중심이지만, 그렇지 않고 주로 향교, 서원 등을 통해 제주 선현들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인물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불행히도 4·3사태 중 제주의 특수한 역사적 충격 등으로 이들이 남겨 놓은 시문집들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아, 우선 손에 잡히는 제한된 자료를 언급하고, 후일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처럼 대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 방향으로 자료를 검토해 이를 종합해 보면, '제주문학의 복합적 윤곽이 드러날 뿐더러 제주도 지역문학의 특수성이 구명되어질 것으로 믿는다.

2. 유배문학의 특수성과 자료

조선조의 제주 유배는 현실적으로 중죄인의 경우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사화나 당쟁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회가 오면 사태가 반전되어 재동용될 수도 있다는 의식이 작용하여 본인이나 수용자로서의 도민의 입장에서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무게가 얹힌 과객으로서의 대우였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시문을 남겼거나 교육을 통해 제자 양성 등 뿌렸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을 나열해 보면, 沖庵 金淨·白山 李世蕃·桐溪 鄭蘊·艮翁 李湲·默齋 申命奎·寒竹堂 申鉉부자·晩求 金鎭龜·北軒 金春澤 부자·西齋 任徵夏·悔軒 趙觀彬·任觀周·靜軒 趙貞喆·阮堂 金正喜 등을 들 수가 있다.

기묘사화의 여파로 제주에 유배된 沖庵 金淨(1486-1521)은 비록 일년 여의 유적 생활 끝에 사사되어 생을 마감하지만, 이 고장에 미친 그의 학문적 영향은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옛 제주성 동문밖 금강사 옛터에서 고독한 유배생활을 하였는데, 그의 사후 백여년이 지난 1578년 판서정 우물가에 沖庵廟가 세워지고 이가 橋林書院이 되어, 그후 송인수·김상헌·정온·송시열을 함께 모시는 五賢祠로 이어져 제주도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기에 이른다. 「沖庵先生集」에는 그의 유배생활을 읊은 「海島錄」의 40여편의 시들 외에 체험적 풍토기인 「濟州風土錄」이 눈을 끈다. 이 풍토록은 나중 인조때 제주에 유배된 葵窓 李健의 「濟州風土記」에 영향을 준다. 기묘록의 이른바 「臨絕辭」에는 「投絕國兮作孤魂 遺慈母兮隔天倫 遭斯世兮殞余身 乘雲氣兮歷帝閭」이라 읊

어, 어머니를 두고 가는 죄스러움과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풍토록」은 제주 지역의 풍토지로는 최초의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곳의 기후·신앙·언어·풍속·가옥구조 등에 대하여 그 특이성을 들어 다양한 개진을 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우매함과 관리들의 횡포를 열거하고, 특히 제주 특유의 토속신앙인 蛇神信仰에 대한 관찰 등은 오늘날까지도 그 풍습의 전래와 함께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都近川水精寺重修勸文」에서 보면, 그는 제주의 미신타파를 위하여 불교의 진흥을 권유하고 있으며, 「聞方生淡牛島歌」에서 보면 「패관잡기」나 「성수시화」에서 극찬한 바와 같이 우도의 '주간명월'의 절경을 꿈속인 양 묘사하고 있다. 「晚望」, 「去國」 등은 유배생활의 고독을, 「寄山池」, 「寓興」 등은 담담한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그의 제자 가운데는 제주교수 金良弼과 文世傑(悼文土豪)이 빼어났으며, 지금 그의 적려유적과 가락천 판서경은 없어졌지만, 「沖庵金淨先生謫廬碑」가 남아 그의 체취를 제주인들에게 오늘날까지도 전하고 있다.

白山 李世蕃(1482-1526) 역시 기묘사화 당시 조광조 등을 옹호하다가 제주 대정현 신도리(속칭 뚝개)에서 7년간 유배생활을 하였다. 「기묘록」에 「都事李世蕃有學問操守」라고 한 것처럼, 그는 유배생활 중에서도 불모지나 다름없던 대정 서단에서 현지민들의 교화에 정성을 다하였으며, 세상을 떠난 뒤에도 유해는 육지로 반장하지 않고 오히려 처자가 이곳에 내려와 정착하여 고부이씨의 입도조가 되었다(묘소: 고산 신물왓). 이들 후예가 가파도와 마라도를 개척한 전설은 유명하여, 후손 중 이구성은 정시에 등제하여 내외직을 모두 거치고 있다.

桐溪 鄭蘊(1569-1641)은 광해군의 폐모살제사건을 규탄하다 유배되어 대정현 안성리에서 8년간 유배생활을 하였다. 「桐溪集」의 「大靜縣東門內圍籬記」는 위리안치된 자신의 참담한 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大靜縣」·「松岳暮雨」·「海岸滿潮」·「城隅獨井」·「漢顏朝雲」 등 유배기간의 수다한 작품들이 유배생활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는 「德辨錄」을 지어 자성서로 삼고 「自警箴」을 지어 몸소 농사를 지으며 수양에 힘쓰며 같은 시대의 유적인 李瀾과 宋象仁과도 시문 창수를 하고 있다. 대정 성내 막은골(塞門洞)의 유적은 없어졌으나 정조 때 대정서당이 이곳에 이건되고 현종 때 목사 李源祚가 유허비를 세우고 松竹祀를 지어 그를 향사하였다. 지금은 보성국민학교 입구로 옮겨져 있는 이원조의 「大靜遺墟碑」와 「竹林書院記」의 내용은 「동계집」에 자세하

며, 『藥坡漫錄』 정은조에는 ‘謫島十餘年 乃有一妾’이라 하였으니, 그의 후손도 입도조가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良翁 李瀾 역시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제주의 대정에 안치되어 5년여의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현마공신 金萬鎰의 딸을 맞아 仁濟라는 아들을 두었으니 이가 경주이씨 菊堂公파의 입도조가 되었다. 그의 문하에서는 明道菴 金晉鎔 高弘進 등의 걸출한 인물이 배출 되었고, 간옹의 증손자 李枕은 제주에 내도하여 천총 별장의 벼슬을 하였으며, 손자 重發 重成은 김진구에게 제주에서 사사한 인연으로, 김춘택이 이윤의 비문을 짓고 그 비가 지금도 서귀포 月羅峯에 서 있어, 양가의 학연을 짐작케 하고 있다.

默齋 申命奎(?-1689)와 寒竹堂 申鉉은 양대에 걸친 부자 적객으로 제주와 인연을 맺게 된다. 『默齋記聞錄』에는 그가 화북항으로 입도하여 대정현 延來村(서귀포시 예래동) 李愛吉의 집에 머문 사실이 확인되는데, 지금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다. 『목재기문록』은 자신의 유배생활의 모습과 제주의 인정 풍습 전문 등이 담담하게 기술되어 있다. 정신환국으로 그는 진도의 껍이재의 집으로 이배되는데, 그의 정치적 복권은 아들 신임의 끈질긴 부친 구출작전의 결과로 알려져 있다. 신명규가 기른 대표적 제자로는 나중 문과에 급제한 정 의인 吳廷賓을 들 수 있다. 아들 한죽당은 부친이 6년여의 유배생활을 한 데 비하면 불과 2년의 짧은 기간이었다. 임인무옥에 반기를 들었다가 84세 고령으로 부친 유배 시에 한번 찾아가 보고는 이번에는 자신이 유형수가 되어 안덕면 감산리에 적거된다. 그는 『安定瓦 相老軒』의 편액을 달고 ‘樂而忘憂 怡然自得’의 시귀를 써 붙이고 세사에 초연하며 이곳의 빼어난 풍광을 벗삼아 제자들을 가르치기에 몰두하였는데, 이 사실은 趙觀彬의 『梅軒集』 가운데도 확인된다. 이 지역에서 뒷날 한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것도 이들 부자 유형수의 생활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목재기문록』과 『한죽당집』에는 부자 적객의 시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晩求 金鎭龜(1651-1704)와 北軒 金春澤(1670-1717) 역시 부자 적객으로 제주 유배기간 우리 문학사에 뚜렷한 문학적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김진구는 인현 왕후 폐출을 반대하는 상소사건에 연루되어 제주에 유배되는데, 우암 송시열이 제주유배에서 소환되어 도중 정읍에서 사사된 직후였다. 그의 배소는 성내 가락천 근처 동천동 주기 吳眞의 집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후 5년간이나 이곳에서 유배생활을 하게 되며 아들 김춘택도 유배되었을 때 같은 집에서 부

자가 거듭된 유배생활을 하는 기구한 인연을 갖게 된다. 그는 유적의 몸이었으나 제주 유생에게 경사의 학풍을 전수하여 그 가운데 吳廷賓·高萬瞻·李重發·金德恒 등은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만구와 사제지간의 인연을 남기게 된다. 김춘택의 『北軒集』, 『濟州東泉謫舍記』에는 '춘택이 또 간신 무리의 간교에 말려 부친의 상복을 채 벗기도 전에 제주에 유배되니 실로 16년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북헌집의 『囚海錄』은 문집의 삼분지 일에 해당하는 분량(시·문으로 구분)으로 모두가 제주 유배 시의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그는 부친을 만나러 온 것까지 합치면 세 차례나 제주와 인연을 맺게 되는 셈인데 『山池七歌』, 『山池舍記』, 『涉海錄』, 『謫舍』 등 수많은 작품이 남아 있으며, 『大靜道中』의 시에서 보면 마지막 적거지는 대정지방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북헌은 제주에서 종조부 서포 김만중의 『謝氏南征記』를 목적소설로 보고 한역하였으며, 가사작품으로 『別思美人曲』을 창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西齋 任徵夏(북헌의 매부)의 『柑山錄』에는 石禮라는 노기가 자신을 찾아와 북헌의 『별사미인곡』 일곡을 창하였다고 하였으니 북헌도 서재와 가까운 곳에 있었고, 『별사미인곡』도 창법이 있었음이 짐작된다. 『북헌집』의 『吾家西浦翁手寫兩詞一冊書 其目曰謫經 余來濟州又以謫 作別思美人曲 追和松江兩詞』에서 보면, 『별사미인곡』이 송강의 언경(사미인곡·속미인곡)과 함께 화답되었음을 알 수 있다.

西齋 任徵夏는 『서재집』, 『南遷錄』에 의하면 김진구의 사위이므로 탕평책을 반대하다 제주에 왔을 때 김진구를 안내하던 洪尚敏의 집을 적거지로 택한다. 그러나 『남천록』에서 보면 나중에는 대정의 안덕면 감산리의 高濟英의 집을 택하게 되며, 안내인 金德恒 역시 김진구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다. 서재집의 『要訣諸生』에는 『閉門讀書 益勤無怠』라 하여 학문에 정진하는 모습이 보이며, 『柑山七歌』, 『濟州雜詠二十首』 등에는 당시 제주의 풍광이 여실히 묘사되고 있다. 지금 안덕 감산에는 후손인 임현대 목사가 철종 때 세운 『謫廬遺墟碑』가 남아 있다.

悔軒 趙觀彬(1691-1757)은 노론사대신 조태채의 아들이며 탕평책을 구실로 동문박 김호의 집에 유배되어 비록 반년 여의 짧은 유배생활을 하였으나 회헌 집에는 『遊南銘記』, 『島中有思』 등 백여 편의 많은 유배시를 남겼다. 그중 특히 『耽羅雜詠』 22수는 유형지의 사회·풍물·인정 등을 읊은 竹枝詞類의 특이한 작품으로 시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한편 任觀周는 3개월 동안의 짧은 안덕 倉川里 유배기간에 창고천·천제연·용연·백록담 등에 마애명을

남겨 암각사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

靜軒 趙貞結(1751-1831)은 정조 시해사건에 연루되어 제주에 와 유배사상 가장 긴 28년 간의 지루한 세월을 견뎌내고, 해배되어 제주목사가 되어 고향처럼 이곳을 다시 찾고 있다. 오랜 귀양살이의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는 한향리의 딸인 洪娘과 사랑에 빠진다. 이 눈치를 챈 정적 남인계 목사 김시구는 홍랑을 불러 가혹한 형벌을 가하나 그녀는 끝내 정현과의 관계를 자백하지 않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다. 일설에는 조정철이 고문당하여 초죽음이 되자 홍랑이 그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오줌을 받아 먹여 살려내고, 그녀는 죄인을 구한 죄목으로 잡혀 처형되었다고도 한다. 정현은 자신을 구해준 홍랑의 죽음을 못잊어 해배 후 제주목사를 자원하여 찾아와 홍랑의 무덤앞에 통한의 비를 세우고 명복을 빌었다. 그녀의 무덤은 지금 금덕리 木塚에 「洪義娘之墓」로 보존되고 있는데, 홍랑과 정현 사이에는 딸이 하나 태어나 그녀가 밀양박씨와 결혼하여 그 후손에 의해 무덤이 돌보아지고 있다. 시문집 「靜軒瀛海處坎錄」 말미에는 「題洪娘墓」의 애절한 시(표비에 새겨짐)가 남아 있으며, 홍랑과의 관계와 유배생활의 현장시 「獄中悲恨」, 「洪娘發軔一絕」 등이 남아 전한다.

阮堂 金正喜(1786-1856)는 윤상도의 홍소사건에 연루되어 대정 안성리에 유배되는데 宋啓純 姜道淳의 집에서 다시 안덕계곡 倉川里로 옮겨 다니면서 9년의 유적생활을 겪게 된다. 해배가 되어 귀경하였으나 다시 北靑의 유배길이 그를 기다리게 된다. 그 곳에서 다시 해배 되어 친부 노경의 산소가 있는 과천의 돌무계(住岩里)로 돌아와 奉恩寺를 내왕하여 만년을 보내다가 71세의 나이로 그곳에서 과란만장의 일생을 마감한다. 그의 「阮堂先生全集」에는 유배생활과 관련된 시문들이 많이 남아 전하며 「완당척독」에는 자신의 근황과 배소의 상황들이 처절하게 묘사되고 있다. 「瀛洲禾北鎮途中」에는 배소에 임하는 광경이 역력하고, 「水仙花賦」, 「大靜村舍」 등에서 보면 그의 시적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다. 완당은 유배지의 산세를 모방하여 유명한 秋史體를 개발하였다고 하며, 제주에서 완성했다고 하는 「歲寒圖」는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데, 일인 藤塚隣의 추사연구(「淸朝文化의 東漸研究」)는 그가 세계적 金石學의 권위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추사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제자 가운데는 유배지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대정리 姜道淳, 제주의 金九五, 광지의 朴季詹을 들 수 있는데, 이중 박계첨은 해배 후 추사를 따라 서울로 함께 가게 된다. 적거중 산방굴사에서 수도하던 草衣와 진도에서 찾아온 許小痴와의 만남과 화운들

도 유배문학의 소중한 자료로 기록될 만하다.

3. 官人·來訪客文學과 자료

조선조에 접어들어 제주를 거쳐간 목사 절제사 방어사들만 하더라도 근 삼백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명관도 없지 않았으나 상당수가 고도의 독재자 행세를 하며 재임기간 도민을 착취하고 개인의 사욕만을 일삼으며 전직의 시기만을 기다리며 민심을 외면하였다. 이중 작품을 남겼거나 문학적으로 거론할 인물 가운데는 李約東·宋麟壽·趙士秀·林亨秀·李元鎮·李衡祥·趙貞喆·李元祚 등을 들 수 있으며, 순무사 金尚憲·금오랑 申光洙, 그리고 근친을 위해 내방했던 白湖 林悌 등을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李約東의 「老村先生實記」에는 「題濟州觀德亭」, 「題旌義靈泉館」 등의 자작시와 당대 각지인들의 「唱和詩章」이 남아 있어 문학적 그의 재능을 살펴 볼 수 있으며, 당대 학자들이 「德行文藝冠于一世」라 한 평가나 청렴을 상징하는 「掛鞭岩」, 「投甲淵」의 일화가 그의 인품을 보여주고 있다.

宋麟壽는 김안로에 의해 제주목사로 출척되었다가 병으로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사표를 쓰고 임지를 떠난 것이 말썽이 되어 실록에 기술되어 있으나, 을사사화에 화를 입고 재임기간의 학덕이 빼어나 오현의 한 분으로 굴림사에 배향되었다. 한편 林亨秀는 특히 지방민의 교육에 힘써 月溪精舍, 金寧精舍 등을 건립하고 정미벽서 사건으로 사사되기도 하였다.

太湖 李元鎮의 「耽羅志」는 제주도관계 읍지로는 16세기 이후 효시적 저술이다. 「탐라지」는 1953년(효종4)에 제주석학 高弘進의 교감으로 간행되었는데, 그후 정조년간의 관찬 「濟州邑誌」, 「濟州大靜旌義邑誌」를 거쳐 현종조 이원조의 「耽羅誌草本」에 이르기까지 제주 연구의 기본 자료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무렵 화란인 하멜 일행이 표류하여 와 일행을 서울로 압송한 기록도 실고 있다. 주로 인용된 문헌은 「동국여지승람」, 「충암풍토록」 지지 등이다. 특히 題詠 가운데 「崔溥詩三十五絶」, 金宗直의 「耽羅歌十四首」, 金淨의 「牛島歌」, 金敏의 「遊漢拏山記」를 볼 수 있음은 기억할 만한 일들이다.

瓶窩 李衡祥은 1702년(숙종28) 목사로 부임하여 三姓廟를 이건하고 토속 신앙의 상징인 광양당, 광정당을 철폐하고 불사를 없애고 토호의 세습특권을 폐지하는 등 근대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하다. 질서인 윤두서의 청탁으로

「南嶽博物誌」를 짓고, 「탐라계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의 「耽羅巡歷圖」는 화공 김남길을 시켜 제주를 28쪽의 화면에 수록, 연례행사·봉진·대렴·구마 등의 풍류를 담은 것으로, 제주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되며, 「瓶窩集」의 시문들도 제주 문학연구의 좋은 자료가 된다. 趙貞結은 나중 제주목사도 지냈으나 전편에서 그의 시문집 「정현영해처감록」을 소개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줄이기로 한다.

凝窩 李源祚(1792-1871)는 1841년 제주 목사로 부임하여 근 삼년 동안 제주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으니 그의 업적이 「凝窩全集」(4책) 가운데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 4책은 응와의 제주생활과 문필활동을 살필 수 있는 「耽羅錄」과 탐라연구에 기본자료가 되는 「耽羅誌草本」이 수록되어 있다. 「탐라록」은 일별로 편차하였는데 「瀛洲十景題畫屏」을 비롯하여 「遊漢拏山記」, 「耽羅十謠」 등 각종 시문들이 수록되고 있다. 특히 「탐라십요」는 죽지사계의 기속시로 열편의 오언십행시를 묶어 이국적 제주 풍물과 여인들의 생활풍모를 서정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탐라지」는 濟州 旌義 大靜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편차 기술하고 寄聞 題詠들도 함께 실었다. 특히 「탐라록」은 수많은 시문들이 아직 본격적 연구가 시도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제주 연구의 새로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응와는 재임시에 정온의 大靜謫廬에 遺墟碑銘을 찬하고(글씨는 秋史가 쓴) 松竹書院을 창건하고 여기에 위판을 봉안하였으며, 삼읍에 감결을 내려 유생들을 시취하여 사학에 거점토록 하는 등 교육사업에도 공적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淸陰 金尚憲(1570-1652)은 이른바 길운절의 제주반란사건을 평정하기 위하여 안무어사로 제주에 파견되어 반년 동안의 행적을 일기체인 「南樸錄」으로 남겨 놓았다. 나중 제주목사 李瑔이 상재하였으며 서문은 尤庵 宋時烈이 썼다. 치계에 의하면 가을인데도 한달을 계속 비가 내리고 바람이 심히 불며 수확할 곡식이 없어 농민의 기황곤핍한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으니 하루 빨리 무휼책을 써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선조34년 11월). 실록에 의하면 숙종 8년에 김정·정온·송인수·김상헌의 사신서원이 창건되고 사액이 허락되며, 숙종 21년에 송시열을 합사하여 굴림사로 삼고, 이후 제주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게 된다. 2편 4권의 「남사록」은 南程·候風·渡海과정과 風物·山祭·明倫觀德·查點·咨問弊瘼의 치적, 그리고 朝天館歸風의 귀환과정까지를 자신과 역대 명인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남사록」은 「地誌」,

충암의 「풍토록」, 임제의 「남명소승」, 최부의 「표해록」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중 최부의 「耽羅詩35絶」은 제주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을 읊은 서사시이며, 공약인 김극수에게서 말로만 듣고 읊었다는 김종직의 「점필재탁라가14수」는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자술로 된 「한라산 장관편」, 「조천관잡영」, 「보탁라가」 등도 작가의 온오를 가능할 작품들이다.

石北 申光洙는 金吾郎으로 탐라에 입도하였다가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 그의 「石北集」의 「耽羅錄」이 그것이다. 작품으로 「入港望耽羅」, 「戲贈少妓碧桃月」, 「城上觀妓走馬」, 「望京」 등의 작품 외에, 장가로 「漢擎山歌」, 「濟州乞者歌」, 「潛女歌」 등은 제주의 냄새를 짙게 풍기는 작품들이다.

白湖 林悌(1549-1587)의 「南溟小乘」은 필자가 당시 제주목사였던 부친 林晋을 만나기 위하여 내도하여 제주도를 탐승한 기록이지만, 최초의 일기체 기행수필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남명소승」은 1577년(선조 10) 11월부터 이듬해에 걸친 불과 4개월여의 여정이지만 문학적 비중이 적지 않다. 충암옛터에서의 「五言長律」, 「思仙謠」, 「漢擎長律」, 「步虛詞」, 「白雲名篇」, 「撥雲歌」, 「迎送曲」 등 명승을 찾는 때마다 명편의 시가 남아 있다. 탐라의 빼어난 풍물 묘사도 눈여겨 볼직하다. 토착민들의 원시적 생활·언어·풍습·산업·가옥구조에 이르기까지 사실적 기록을 읽을 수 있으며, 명승·고적·등반·적거인과의 대화에 이르는 풍부한 민속문학의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관관 조인후를 통해 들은 연근의 처 千德의 이야기를 듣고 한편의 작품으로 입전하며 후대에 전해준 「千德傳」은 후대에 채제공이 입전한 「萬德傳」, 그리고 조정철과의 사랑을 간직한 「洪娘傳」과 함께 「耽羅三傳」으로 일컬을 만한 자료라 할 수 있으며, 김려의 「琉球王世子外傳」도 제주 문학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된다. 임제는 「화사원생몽유록」, 「수성지」의 창작을 통해 소설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지만, 기행록 「南溟小乘」을 통해 탐라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유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금석문에 남아 전하는 관인들의 작품들도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는데, 예컨대 한내의 訪仙門만 하더라도 洪重徵의 「登瀛丘」, 金永綬의 「喚仙臺」, 韓鼎運의 「次壁上韻」, 李義謙·韓昌裕·金綴 등 십여 명의 마애석각시 등이 남아 있어 그들의 문학을 짐작케 하고 있다.

4. 제주출신 문인의 문학과 자료

조선조에 접어들어 제주인 교육의 정신적 틀을 형성한 곳으로는 鄕校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제주향교는 1392년(태조원년), 정의향교와 대정향교는 1416년(태종16년)에 각각 건립되었다. 향교가 정신적으로는 선현들의 위패 봉안과 제례의식의 봉행이었지만, 명륜당과 서재를 통한 인재 양성에 적지 않은 목표를 두었으므로, 많은 인재들이 향교를 통하여 배출되었다. 제주 향교에는 유안(향안)을 비롯하여 縉紳先生案·司馬先生案·橘林書院案 등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정의향교와 대정향교의 儒案 그리고 三姓祠의 유안에 기록된 수천명의 유생들은 비록 유학 중심이지만 제주정신과 문화를 지탱해온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이중 굴림서원은 선조조의 관관 조인후가 충암선생의 사당을 세운 데서 비롯하여 현종조 최진남이 藏修堂을 齋로, 충암묘를 祠로 삼아 橘林書院이라 현액하였는데, 그후 김상헌·정은·송인수·송시열을 함께 모셔 五賢祠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나 서원 철폐령으로 그곳 문적이 제주향교로 옮겨지게 된다. 한편 三姓祠는 충절서원의 형식으로 숙종조 목사 유한명이 삼성혈 동쪽 삼을나묘를 건립하고 목사 이형상이 가락천 동쪽으로 옮겨 제향하였으며, 서원으로 발전된 것은 영조조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향교는 육지나 다름없이 성리학적 입장에서, 굴림서원은 유배인의 향사가 출발점이었으나, 삼성사는 제주 삼성을 모시는 제주의 주체성과 관련되고 있음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제주지역의 사료보존실태 : 김봉옥).

제주의 최초 사설교육기관으로는 목사 심연원이 세운 鄕學堂(중종조)이라 할 수 있다. 그후 인종조에 金寧精舍(동학)와 月溪精舍(서학)라는 사숙이 건립되었으며, 특히 영조조의 三泉書堂을 비롯하여 정의서당 대정서당은 독자적 제주학의 발판을 구축하고 있다(조선조 제주도 교육시설 : 양진건).

정조실록(1794)에는 「耽羅實興錄」의 반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제주어사 심낙수가 시취한 유생의 시권을 상송하여 친립 과차하였다. 논의 수석은 대정유학 邊景鵬, 책의 수석은 정의 유학 夫宗仁, 시의 수석은 정의 유학 高鳴鶴, 부의 수석은 제주유학 洪達勛, 명의 수석은 제주유학 李台祥, 송의 수석은 鄭泰彦인데, 모두 전시에 직부케 하였다. 이러한 입격자 작품을 기록 반포하여 「탐라빈홍록」이라 하였다.(耽羅錄)

규장각 소장의 빈홍록에는 「응제시권」이 어제와 함께 남아 있어 18세기 제

주인의 문학적 역량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

吳文福편의 『瀛洲風雅』는 제주출신 문인으로 여조의 高兆基의 「珍島江亭」에서 근조 무명씨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근 백여명 백수의 작품을 가려 모아 연대순으로 해제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高得宗·高景晄·愼鴻錫·曹南窩·吳啓默·梁聖廈·高仲顯 등의 작품이 양적으로나 질적 면에서 눈을 끈다. 한라산을 읊은 노래만도 강사공·고영혼·김양수·오계묵·김석익·고영하 등이 있어 다양한 시상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김문숙의 「耽羅竹枝詞」는 제주 풍속을 노래한 열네편의 연작시인데 「諸家吟詠集」의 출전으로 한라산 풍광에서 관장행차·방물조공·향반거동·망건짜기·물허벅·방아소리·발뽕기·풍습 등을 다양하게 읊고 있다. 조남와의 「영주십경시」나 매계의 「영주십경」에 대한 김의정의 차운도 특색이 있다. 한편, 「諸家吟詠集」은 「隆熙元年丁未鶴阜洞抄」라 하였으니 1907년(순종1)에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한우·김문숙 등 탐라 제선비들의 창화시를 필사한 작품집으로, 「瀛洲十景」, 「四家十景詩」에서 보면, 梅溪 石湖를 비록한 蓮坡(김창현), 襄庵(유담), 海隱(김우경), 汝範(性敦) 등 제가들의 창수시를 수록하고 있으며 「金文叔耽羅竹枝詞十四絕」이 수록되어 당시 시사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李漢雨의 「梅溪先生集」은 매계의 다양한 시문뿐 아니라 주변 후배 제자들의 和韻詩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추사선생과의 공유한 흔적도 엿보이며 안달삼·김희정·이계정·고영혼 등 석학들을 문하에서 배출하기도 하였다. 「영주십경」에 창수한 이용식(율하)·김양수(난곡)·김창현(연파)·유담(양암)·김희정(우경)·김계두(여범)의 시를 통하여 강진·하동·평양등지의 인물과도 교분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한편 「一詠亭記」나 「墨洞實錄」, 「三政策」 등을 통하여 보면 산문에 대한 능력도 입증된다. 金錫翼의 「心齋集(1·2)」은 근래(1990) 영인 간행된 바 있다. 그의 근 백수에 이르는 시는 다양한 소재들로 처세절물과 인품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자전 月始先生傳을 비롯하여 「金炳淵傳」·安永綬傳·「金鎭炫傳」을 통해서는 傳文學에의 관심도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관북유람기인 「北行記」를 비롯하여 「文淵堂記」·「瀛軒記」·「艮翁先生謫廬遺墟記」는 그의 인물관심도를 짐작케 한다. 「雜同散異」에서는 「百結先生歌」, 「何如歌」, 「丹心歌」를 국역하고 雪曼頭(설문대할망), 萬德傳說 등을 수록하였고, 「破閑錄」에서는 제주의 야사를 정리 수록하였으며, 「槿域詩話」에서는 우리나라의 名家語話를 수록하였고, 「耽羅紀年」은 제주의 향토사로서 탐라사적을 기

년체로 기술하여 지금까지의 탐라사를 망라하여 정리해 주고 있다. 고경준의 「靈雲集」(1989)도 시문을 번역·간행하였는데 제자인 「탐라국기」의 저자 간옹 이용호가 편집하고 서문을 썼다. 제주의 인맥을 살피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丁翼燮의 「南耘遺稿」, 權碩浩의 「島雲集」도 살펴 볼 만하며 吳秉杓의 「松庵號韻集」(1986)도 영인된 것이 있다. 제주 마을시리즈로 도두리·오조리·함덕리·호근·서호리·한림리의 10개리가 간행되었는데, 그중 애월의 「漂海錄」(張漢喆)은 이미 소개된 것은 오래이다. 崔溥의 「표해록」과 함께 해양문학의 대표적 작품으로 손꼽힌다. 그리고 「張漢喆遺稿集」에 소개된 「天君傳」은 심성을 의인화한 天君小說의 모작으로 평가할 만한 작품이다. 봉개의 「南谷詩集」(고영하), 화북의 「禾菴詩集」(신홍석), 「樂泉集」(김희두), 「農巷集」(양성하), 한림의 「琴軒詩集」(강의경) 그리고 김인택의 「大靜衙中日記」도 값진 발굴이다. 이밖에 기록으로만 확인된 것으로도 「海山齋記」와 시문(고종현), 「水陰文集」(김희돈), 「雲庵遺稿」(정경룡), 「農隱詩集」(김희준) 등 수많은 시문집이 미정리된 채 연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濠洲吟社의 맥을 잇는 詩稿들도 제주문학연구의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된다.

5. 맺 는 말

조선조 제주문화의 특수성을 든다면 삼읍의 향교 건립과 동시에 있어온 주자주의적 유교문화, 그리고 당쟁 사화로 말미암아 유배되어 온 사람들의 유배문화와, 조선조 후기에 접어들어 각 지역에 개설된 서숙·서당문화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외형적으로 보면 독자적 성격이 강한 것 같으나 실은 모두가 연관성을 갖고 혼용된 하나의 문화로 발전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주자주의적 향교문화는 유가적 색채가 짙은 유배문화와 이념적으로 일치하였고, 유배객들의 존경과 민중적 영합이 사제관계로 발전하면서 이를 뿌리로 하여 서숙서당 문화도 싹을 틔우게 된다. 그러나 제주는 특수한 역사 지리적 여건으로 하여 경학 과거지향적 학문 외에 지역적 사장 문학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러한 방향 전환이 관학의 거친 지표를 뚫고 유배객과의 사제관계에서 싹텄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2에서는 조선조의 대표적 유배객 십여명을 선정하여 주로 문집 속의 제주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3에서는 제주에서 벼슬을 살았거나 기행한 사

람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4에서는 제주에서 태어나 이 고장에서 교육을 받은 인물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들의 문학과 자료를 개관하였다. 그러나 제주 문학의 특색으로 단연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쪽이든 제주의 역사와 독특한 풍광을 노래한 서경·서정적 작품류들이며, 다음으로는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는 현실지향의 작품 그리고 제주민의 살아온 역사와 관련하여 반육지 반관료적 저항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그러나 제주 문학이 한국문학의 보편성 위에 자리 하려고 하면 건실한 제주 특유의 문학적 정체가 시급히 정리 연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학사에서 뚜렷한 한국문학의 한 장으로 제주문학이 기술 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서 목

- 金 淨, 「沖庵先生集」·「海島錄」.
 鄭 蘊, 「桐溪集」.
 申命奎, 「默齋記聞錄」.
 金春澤, 「北軒居士集」·「囚海錄」.
 任徵夏, 「西齋集」·「南遷錄」.
 趙觀彬, 「悔軒集」·「耽羅雜詠」.
 趙貞喆, 「靜軒瀛海處坎錄」.
 金正喜, 「阮堂先生全集」·「論詩」.
 李約東, 「老村先生實記」.
 李衡祥, 「瓶窩全書」·「耽羅啓錄」·「南宦博物志」.
 李源祚, 「凝窩全集」·「耽羅錄」.
 金尚憲, 「清陰集」·「南槎錄」.
 申光洙, 「石北集」·「耽羅錄」.
 林 悌, 「白湖集」·「南溟小乘」.
 「耽羅賓興錄」.
 吳文福撰, 「瀛洲風雅」.
 「諸家吟詠集」.
 李漢雨, 「梅溪先生集」.
 金錫翼, 「心齋集」.

高景晔, 「靈雲集」.

張漢喆, 「漂海錄」.

高永夏, 「南谷詩集」.

愼鴻錫, 「禾菴詩集」.

강의경, 「琴軒詩集」.

「耽羅文獻集」,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6.

「耽羅錄(조선왕조실록)」, 제주문화방송, 1986.

金泰能, 「濟州島史論攷」, 1982.

金奉鉉, 「濟州流人傳」, 국서간행회, 1980.

流配人列傳 및 流謫一番地(신문연재).

史料調査委員會議 발표요지, 국사편찬위원회, 1994. 6